

매일 미사 전례 독서

2010년 8월

한국 천주교 주교회의

신심 미사

병자들의 구원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

제1독서 <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다.>

▣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53,1-5.7-10

¹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?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? ²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새순처럼,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.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, 위엄도 없었으며,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. ³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,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.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,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,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. ⁴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,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.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, 하느님께 매맞은 자,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.

⁵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,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.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,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. ⁷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,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.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,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,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. ⁸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,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?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 나가고,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. ⁹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,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,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,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. ¹⁰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,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.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,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,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3(102),1-2.3-4.6-7.8과 10(◎ 17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의 자애는 영원히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리라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-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. ◎
-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,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.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,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 ◎
-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,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.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,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. ◎
-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,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.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,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. ◎

복음 환호송

- ◎ 알렐루야.
- 동정 성모 마리아 님, 주님이 하신 말씀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, 정녕 복되시나이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, 어찌 된 일입니까?>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.39-56

³⁹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,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. ⁴⁰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,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. ⁴¹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,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.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 큰 소리로 외쳤다.

“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,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 ⁴³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, 어찌 된 일입니까? ⁴⁴ 보십시오,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,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. ⁴⁵ 행복하십니다,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!”

⁴⁶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. 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, ⁴⁷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, ⁴⁸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.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, ⁴⁹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.

그분의 이름은 기록하고, ⁵⁰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. ⁵¹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,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. ⁵²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,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, ⁵³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,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. ⁵⁴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,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, ⁵⁵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,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.”

⁵⁶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일 연중 제18주일

제1독서 <그 모든 노고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?>

▮ 코헬렛의 말씀입니다.

1, 2; 2, 21-23

² 허무로다, 허무! 코헬렛이 말한다. 허무로다, 허무! 모든 것이 허무로다!

^{2,21}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, 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또한 허무요, 커다란 불행이다.

²² 그렇다,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? ²³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, 그의 일은 걱정이며,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, 이 또한 허무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0(89), 3-4.5-6.12-13.14와 17(◎ 1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,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. “사람들아, 돌아가라.”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,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. ◎

○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,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,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.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,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. ◎

○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.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. 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리이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◎

○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.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.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.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.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. ◎

제2독서 <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.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.>

▮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.

3, 1-5.9-11

형제 여러분, ¹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,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.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

앞아 계십니다. ²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,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. ³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,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. 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,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.

⁵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, 곧 불륜, 더러움, 욕정, 나쁜 욕망, 탐욕을 죽이십시오.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. ⁹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.

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, ¹⁰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.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. ¹¹ 여기에는 그리스인도, 유대인도, 할례 받은 이도, 할례 받지 않은 이도, 야만인도, 스키타아인도, 종도, 자유인도 없습니다.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,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5,3

◎ 알렐루야.

○ 행복하여라,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?>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2,13-21

그때에 ¹³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, “스승님,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.” 하고 말하였다. ¹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사람아,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?” ¹⁵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. “너희는 주의하여라.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. 아무리 부유하더라도,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.” ¹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

“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. ¹⁷ 그래서 그는 속으로, ‘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?’ 하고 생각하였다. ¹⁸ 그러다가 말하였다. ‘이렇게 해야지.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,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. ¹⁹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. ‘자,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,

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.’

²⁰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‘어리석은 자야,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.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?’

²¹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,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일 연중 제18주간 월요일

제1독서 <하난야,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,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.>

▣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. 28,1-17

¹ 같은 해, 곧 유다 임금 치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사년 다섯째 달에,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아쭈르의 아들인 하난야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.

² “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‘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. ³ 두 해 안에,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 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,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 놓겠다.

⁴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. 주님의 말씀이다.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.’”

⁵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, 주님의 집 안에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, 하난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.

⁶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. “아무렴,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!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,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라오.

⁷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 보시오. ⁸ 예로부터, 나와 당신에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. ⁹ 평화를

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,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오.”

¹⁰ 그러자 하난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멩에를 벗겨 내어 부수었다. ¹¹ 그리고 나서 하난야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. “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‘내가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멩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.’”

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. ¹² 하난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멩에를 벗겨 부순 뒤에,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.

¹³ “가서 하난야에게 말하여라. ‘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‘너는 나무 멩에를 부수고,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멩에를 만들었다.’ ¹⁴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‘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멩에를 씌우고,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,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.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.’”

¹⁵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난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. “하난야, 잘 들으시오.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,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. ¹⁶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. ‘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 버리리니, 올해에 네가 죽을 것이다.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.’”

¹⁷ 하난야 예언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9(118), 29.43.79.80.95.102(◎ 68~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저를 거짓의 길에서 멀리하시고,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. ◎
- 당신 법규에 희망을 두오니, 진리의 말씀을 제 입에서 결코 거두지 마소서. ◎
- 당신을 경외하는 이, 당신 법을 아는 이, 모두 저에게 돌아오게 하소서. ◎
- 당신 법령 안에서 제 마음 흠 없게 하소서.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. ◎
- 악인들이 저를 없애려 노리지만, 저는 당신 법을 마음에 새기나이다. ◎
-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기에, 당신 법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4,4ㄷ

◎ 알렐루야.

○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,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.>

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4,13-21

그때에 ¹³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.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,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.

¹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,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,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.

¹⁵ 저녁때가 되자,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. “여기는 외딴곳이고,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.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,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.”

¹⁶ 예수님께서 “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.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.” 하고 이르시니, ¹⁷ 제자들이 “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¹⁸ 예수님께서서는 “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.” 하시고는, ¹⁹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.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,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,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,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.

²⁰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.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,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. ²¹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,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3일

연중 제18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네 허물이 커서,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.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 주리라.>

▮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.

30,1-2.12-15.18-22

¹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다. ²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“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.” ¹² 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, 너의 부상은 심하다. ¹³ 네 종기에 치료 약이 없고,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.

¹⁴ 네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, 너를 찾지 않으리라. 참으로 나는 네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,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. 너의 죄악이 많고,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.

¹⁵ 어찌하여 네가 다쳤다고, 네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? 네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,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.

¹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“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 주고, 그의 거처를 가없이 여겨,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,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. ¹⁹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.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,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,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,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. ²⁰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,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,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.

²¹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,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.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.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? 주님의 말씀이다.

²²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,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2(101), 16-18, 19-21, 29와 22-23(◎ 17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, 영광 속에 나타나시리이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민족들이 주님 이름을,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.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, 영광 속에 나타나시리이다. 햇빛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,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. ◎

○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,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. 주님이 드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,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,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,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 주시리라. ◎

- “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, 그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.” 주님이 시온에서 당신 이름을, 예루살렘에서 당신 찬양을 전하시리라. 그때에 백성들과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,49ㄴ

- ◎ 알렐루야.
- 스승님,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,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나이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.>

- 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4,22-36
- ²²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뒤,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,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. ²³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,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.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.
- ²⁴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,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.
- ²⁵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. ²⁶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“유령이다!”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.
- ²⁷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용기를 내어라. 나다. 두려워하지 마라.”
- ²⁸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. “주님,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.”
- ²⁹ 예수님께서서 “오너라.” 하시자,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.
- ³⁰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.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, “주님, 저를 구해 주십시오.” 하고 소리를 질렀다.
- ³¹ 예수님께서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, “이 믿음이 약한 자야, 왜 의심하였느냐?” 하고 말씀하셨다.
- ³²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, 바람이 그쳤다. ³³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, “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³⁴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렀다. ³⁵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,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. ³⁶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.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4일 수요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

제1독서 <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.>

▣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.

31.1-7

¹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,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. 주님의 말씀이다.

²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.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, ³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. “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.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.

⁴ 처녀 이스라엘아,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네가 일어서리라. 네가 다시 손복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.

⁵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,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.

⁶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. ‘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!’”

⁷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“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,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.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. ‘주님,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!’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예레 31.10.11-12나.13(◎ 10ㄴ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, 주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.

<이어지는 찬가는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- 민족들아, 주님의 말씀 들어라.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. “이스라엘을 흠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,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.” ◎
-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.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.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,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. ◎
-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, 젊은이도,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.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.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7.16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 나타났네.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아, 여인아!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.>

✦ 마태오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 15.21-28

그때에 ²¹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. ²²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, “다윗의 자손이신 주님,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.” 하고 소리 질렀다.

²³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.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. “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.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.”

²⁴ 그제야 예수님께서 “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.” 하고 대답하셨다.

²⁵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, “주님, 저를 도와주십시오.” 하고 청하였다.

²⁶ 예수님께서서는 “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.” 하고 말씀하셨다.

²⁷ 그러자 그 여자가 “주님, 그렇습니다.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²⁸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“아, 여인아!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.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.”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5일
연중 제18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나는 새 계약을 맺고,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.>

▣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.

31, 31-34

³¹ 보라, 그날이 온다. 주님의 말씀이다.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. ³²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.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. 주님의 말씀이다. ³³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. 주님의 말씀이다.

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,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.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,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. ³⁴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,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“주님을 알아라.”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.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 주님의 말씀이다.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,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51(50), 12-13, 14-15, 18-19(◎ 12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하느님,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- 하느님,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,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,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. ◎
-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,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.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,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. ◎
-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,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.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.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, 하느님,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16, 18

◎ 알렐루야.

○ 너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,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너는 베드로이다.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.>

✦ 마태오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 16, 13-23

그때에 ¹³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, “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

¹⁴ 제자들이 대답하였다. “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,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.”

¹⁵ 예수님께서 “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¹⁶ 시몬 베드로가 “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¹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시몬 바르요나야, 너는 행복하다! 살과 피가 아니라,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.

¹⁸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. 너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,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.

¹⁹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.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,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.”

²⁰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,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.

²¹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,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. ²²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. “맙소사, 주님!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.”

²³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. “사탄아, 내게서 물러가라.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.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,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!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6일 금요일
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

제1독서 <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.>

▣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7,9-10.13-14(또는 2베드 1,16-19)

⁹ 내가 보고 있는데,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,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.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,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.

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,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. ¹⁰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.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.

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,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. 법정이 열리고, 책들이 펴졌다.

¹³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,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,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.

¹⁴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,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,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.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,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7(96).1-2.5-6.9(◎ 1ㄱ과 9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은 임금입니다.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은 임금입니다. 땅은 즐거워하고,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. 흰 구름,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,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. ◎

○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.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.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,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. ◎

○ 주님,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,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17,5ㄷ

◎ 알렐루야.

○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,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,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, 그 모습이 달라졌다.>

✦ 루카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 9,28_L-36

그때에 ²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.

²⁹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,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. ³⁰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.

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. ³¹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,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.

³²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,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.

³³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,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, 하나는 스승님께, 하나는 모세께,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.”

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. ³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,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.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,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.

³⁵ 이어 구름 속에서, “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,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” 하는 소리가 났다. ³⁶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.

제자들은 침묵을 지켜,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7일 연중 제18주간 토요일

제1독서 <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산다.>

▮ 하바쿱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

1,12-2,4

¹² 주님, 당신은 옛날부터 불멸하시는 저의 하느님, 저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? 주님, 당신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를 내세우셨습니다. 바위시여, 당신께서는 벌하시려고 그를 세우셨습니다.

¹³ 당신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,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,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,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를 집어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?

¹⁴ 당신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시고, 우두머리 없이 기어 다니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. ¹⁵ 그는 사람들을 모두 낚시로 낚아 올리고, 그물로 끌어 올리며 썰개로 모으고 나서는, 기뻐 날뛰며 ¹⁶ 자기 그물예다 제물을 바치고, 썰개예다 분향을 합니다. 그것들 덕분에 그의 몫이 기름지고,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.

¹⁷ 이렇게 그가 줄곧 그물을 비워 대고,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됩니까?

^{2.1} 나는 내 초소에 서서,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. 그분께서 나에게 무어라 말씀하시는지, 내 하소연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.

²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.

“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.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예다 분명하게 써라.” ³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.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.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. 그것은 오고야 만다, 지체하지 않는다.

⁴ 보라, 뻔뻔스러운 자를.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.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,8-9.10-11.12-13(◎ 11ㄱ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당신을 찾는 이들을 당신은 버리지 않으시나이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은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, 심판하시려 어좌를 든든히 하셨네.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심판하시고, 겨레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네. ◎

○ 주님은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,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네. 주님,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리니, 당신 이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나이다. ◎

- 너희는 시온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미하여라. 그분의 업적 백성들에게 전하여라. 피 갠분은 그들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,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신다. ◎

복음 환호송

2티모 1,10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,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믿음이 있다면,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.>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7, 14-20

그때에 ¹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¹⁵ 말하였다. “주님,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.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, 또 자주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. ¹⁶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,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.”

¹⁷ 그러자 예수님께서, “아,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!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?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?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.” 하고 이르셨다. ¹⁸ 그런 다음,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,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.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.

¹⁹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, “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²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 “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, 이 산더러 ‘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라.’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갈 것이다.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8일 연중 제19주일

제1독서 <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,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.>

▣ 지혜서의 말씀입니다. 18.6-9

⁶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,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,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⁷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. ⁸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,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.

⁹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,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.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,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 시편 33(32), 1과 12.18-19.20과 22(◎ 12-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행복하여라,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!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.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. 행복하여라,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,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! ◎

○ 보라,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,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.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,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. ◎

○ 주님은 우리 도움, 우리 방패.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. 주님,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,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. ◎

제2독서 <하느님께서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이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>

▣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1.1-2.8-19(또는 11.1-2.8-12)
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< > 부분을 생략한다.

형제 여러분, ¹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,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. ²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

⁸ 믿음으로써,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.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.

⁹ 믿음으로써,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,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. ¹⁰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

¹¹ 믿음으로써, 사라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 데다, 나이까지 지났는데도,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.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. ¹²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,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,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,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.

〈¹³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 갔습니다.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,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.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. ¹⁴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,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. ¹⁵ 만일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,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.

¹⁶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,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,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.

¹⁷ 믿음으로써,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사악을 바쳤습니다.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. ¹⁸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서는 일찍이, “이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.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¹⁹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이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.〉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24,42-44

◎ 알렐루야.

○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.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〉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2,32-48〈또는 12,35-40〉
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〈 〉부분을 생략한다.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.

〈³² “너희들 작은 양 떼야, 두려워하지 마라.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.

³³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.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.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, 썩이 썩지도 못한다. ³⁴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.〉

³⁵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. ³⁶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.

³⁷ 행복하여라,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!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,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.

³⁸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,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, 그 종들은 행복하다!

³⁹ 이것을 명심하여라.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,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.

⁴⁰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.”

〈⁴¹ 베드로가, “주님,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?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?” 하고 물었다. ⁴²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.

“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?

⁴³ 행복하여라,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! ⁴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.

⁴⁵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, ‘주인이 늦게 오는구나.’ 하고 생각하며,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,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, ⁴⁶ 예상하지 못한 날,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,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

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.

⁴⁷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,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좋은 때를 많이 맞을 것이다. ⁴⁸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때 맞을 짓을 한 좋은 적게 맞을 것이다.

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,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.”>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9일 연중 제19주간 월요일

제1독서 <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.>

□□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1.2-5.24-28ㄷ

² 제삼십년 넷째 달 초닷셋날,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오년에, ³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, 부즈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,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.

⁴ 그때 내가 바라보니,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,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이 밀려드는데,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불이 같은 것이 보였다.

⁵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,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.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. ²⁴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날갯소리가 들리는데,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, 전능하신 분의 천둥소리 같았으며, 군중의 고함 소리, 진영의 고함 소리 같았다.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.

²⁵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.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.

²⁶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어좌 형상이 있고, 그 어좌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 있었다.

²⁷ 내가 또 바라보니,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불이와 같고,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.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,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. ²⁸ 사방으로 뻗은

광채의 모습은,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.

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.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8,1-2.11-13ㄱ.13나.14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.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. 모든 천사들아, 주님을 찬양하여라. 모든 군대들아, 주님을 찬양하여라. ◎
-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,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, 총각들과 처녀들도, 노인들과 아이들도,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. ◎
-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. 그분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. ◎
- 그분이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높이셨네.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, 그분께 가까운 백성,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. ◎

복음 환호송

2테살 2,14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되살아날 것이다.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7,22-27

²² 제자들이 갈릴래아에 모여 있을 때에,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²³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.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.”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.

²⁴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,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, “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²⁵ 베드로가 “네입니다.”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, 예수님께서 먼저, “시몬아,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? 자기 자녀들에게서냐, 아니면 남들에게서냐?” 하고 물으셨다.

²⁶ 베드로가 “남들에게서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 예수님께서 이르셨다. “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.”²⁷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,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. 스타테르 한 닢을 발견할 것이다. 그것을 가져다가,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0일 화요일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

제1독서 <하느님께서 주는 기쁨을 사랑하십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. 9.6-10

형제 여러분, ⁶ 요점은 이렇습니다.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,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이니다. ⁷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,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.

하느님께서 주는 기쁨을 사랑하십니다.

⁸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. ⁹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. “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,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.”

¹⁰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,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 주시고,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 주실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2(111), 1-2.5-6.7-8.9(◎ 5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잘되리라, 후하게 꾸어 주는 이!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고,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!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, 올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. ◎

○ 잘되리라, 후하게 꾸어 주고,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!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,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. ◎

-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,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.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으니, 마침내 적들을 내려다보리라.
- ◎ 잘되리라, 후하게 꾸어 주는 이!
-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,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,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8,12c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,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누구든지 나를 섬기면,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.>

✦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2,24-26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²⁴ 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,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. ²⁵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,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.

²⁶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.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.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,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1일 수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

제1독서 <예루살렘의 역겨운 짓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.>

▮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9,1-7; 10,18-22

¹ 주님께서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. “이 도성의 징벌이 다가왔다.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.”

² 그러자 북쪽으로 난 윗대문 쪽에서 여섯 사람이 오는데, 저마다 파괴의

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.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,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.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 제단 곁에 섰다. ³ 그러자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커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 갔다. 주님께서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. 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

“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,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,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.”

⁵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. 동정하지도 말고,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. ⁶ 늙은이도 젊은이도,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.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.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.”

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. ⁷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.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. 가거라.”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.

^{10,18}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커룹들 위에 멈추었다. ¹⁹ 그러자 커룹들은 날개를 펴고,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. 그들이 나갈 때에,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.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는데,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.

²⁰ 나는 크바르 강 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. 나는 그들이 커룹임을 알 수 있었다.

²¹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인데,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. ²²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크바르 강 가에서 보았던 모습, 바로 그 얼굴이었다.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3(112),1-2.3-4.5-6(◎ 4ㄴ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- 찬양하여라, 주님의 종들아. 찬양하여라, 주님의 이름을.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, 이제부터 영원까지.
- ◎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.
-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,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.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,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. ◎
-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?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,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. ◎

복음 환호송

2코린 5,19

- ◎ 알렐루야.
-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,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.>

✦ 마태오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 18,15-20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¹⁵ “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,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.

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. ¹⁶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,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. ‘모든 일을 들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’ 때문이다. ¹⁷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, 교회에 알려라.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,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.

¹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,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.

¹⁹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,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. ²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2일
연중 제19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거라.>

□□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

12,1-12

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.

² “사람의 아들이아, 너는 반항의 집안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.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,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.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.

³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이아, 유배 짐을 꾸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거라.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거라. 행여 자기들이 반항의 집안임을 그들이 깨달을지도 모른다. ⁴ 너는 짐을 유배 짐처럼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 놓았다가, 저녁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나라.

⁵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뚫고 나가라. ⁶ 너는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,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.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예표로 삼았다.”

⁷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였다. 짐을 유배 짐처럼 싸서 대낮에 내어 놓았다가, 저녁에 손으로 벽을 뚫고,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.

⁸ 이튿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. ⁹ “사람의 아들이아,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이, ‘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’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? ¹⁰ 그들에게 말하여라. ‘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.’

¹¹ 너는 또 말하여라. ‘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.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. 그들은 유배를 당해 끌려갈 것입니다.’ ¹² 그들 가운데에 있는 수장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,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벽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. 그는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78(77),56-57.58-59.61-62(◎ 7나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시험하고, 그분께 반항하며,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네. 그들의 조상들처럼 등 돌려 배신하고, 뒤틀린 활처럼 어긋나 버렸네. ◎

○ 산당을 지어 그분의 화를 돋우고, 우상을 세워 그분을 진노케 하였네. 하느님은 들으시고 격노하시어,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네. ◎

○ 당신의 힘을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, 당신의 영광을 적의 손에 내주셨네. 당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, 당신 소유에게 격노하셨네. ◎

복음 환호송

시편 119(118),13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,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8.21—19.1

²¹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, “주님,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?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 ²²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.

“내가 너에게 말한다.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.

²³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썬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. ²⁴ 임금이 썬을 하기 시작하자,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.

²⁵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,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.

²⁶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, ‘제발 참아 주십시오. 제가 다 갚겠습니다.’ 하고 말하였다. ²⁷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,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.

²⁸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,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. 그러자 그를 붙들어서 목살을 잡고, ‘빚진 것을 갚아라.’ 하고 말하였다.

²⁹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, ‘제발 참아 주게. 내가 갚겠네.’ 하고 청하였다. ³⁰ 그러나

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. 그리고 가서, 그 동료가 빗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.

³¹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,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렸다.

³²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. ‘이 악한 종아,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. ³³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,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?’ ³⁴ 그리고 나서,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,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.

³⁵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,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.”

^{19.1}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래아를 떠나,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금요일

제1독서 <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다. 그런데 너는 불륜을 저질렀다.>

□□ 예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16,1-15.60,63<또는 16,59-63>

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.

² “사람의 아들이야,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 주어라. ³ 너는 말하여라. ‘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.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,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.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,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.

⁴ 네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, 네가 나던 날, 아무도 네 땃줄을 잘라 주지 않고, 물로 네 몸을 깨끗이 씻어 주지 않았으며,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고, 포대기로 싸 주지 않았다.

⁵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,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 주는 이가 없었다. 오히려 네가 나던 날,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 버렸다.

⁶ 그때에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,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.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‘살아남아라!’ 하고 말하였다. ⁷ 그리고

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, 네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.

젓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, 털도 다 자랐다. 그러나 너는 아직도 별거벗은 알몸뚱이였다.

⁸ 그때에 내가 다시 네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,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.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네 알몸을 덮어 주었다.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.

⁹ 나는 너를 물로 씻어 주고, 네 몸에 묻은 피를 닦고, 기름을 발라 주었다. ¹⁰ 수놓은 옷을 입히고,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 주었고, 아마포 띠를 매어 주고, 비단으로 너를 덮어 주었으며, ¹¹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.

두 팔에는 팔찌를,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고, ¹² 코에는 코걸이를,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 주었으며,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.

¹³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, 아마포 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, 고운 곡식 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.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,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.

¹⁴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 나갔다.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

¹⁵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, 네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.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.

⁶⁰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,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. ⁶³ 이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, 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,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’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이사 12,2-3.4ㄴㄷㄹ.5-6(◎ 1ㄷ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.

〈이어지는 찬가는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“보라, 내 구원의 하느님.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. 주님은 나의 힘, 나의 굳셈. 나를 구원해 주셨네.”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. ◎

- “주님을 찬송하여라. 그 이름 높이 불러라.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,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.” ◎
- “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.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. 시온 사람들아, 기뻐하며 외쳐라.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,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.” ◎

복음 환호송

1테살 2,13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, 사실 그대로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.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.>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9,3-12

그때에 ³ 바리사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, “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. “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?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‘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’ 나서, ⁵ ‘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,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.’ 하고 이르셨다. ⁶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.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.”

⁷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, “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‘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.’ 하고 명령하였습니까?” 하자, 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.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. ⁹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,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.”

¹⁰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, “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.” 하고 말하였다. ¹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

“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허락된 이들만

받아들일 수 있다. ¹²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,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,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.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4일 토요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

제1독서 <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.>

▣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18,1-10ㄱ,13ㄴ,30-32

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.

² “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, ‘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, 자식들의 이가 시다.’는 속담을 말해 대느냐?

³ 주 하느님의 말이다. 내가 살아 있는 한,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. ⁴ 보아라,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. 아버지의 목숨도,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. 죄지은 자만 죽는다.

⁵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, ⁶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,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,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, 달거리하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며, ⁷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, 빛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, 강도 짓을 하지 않고,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며,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 주고, ⁸ 변리를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, 이자를 받지 않고, 불의에서 손을 떼며,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, ⁹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,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

¹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,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, ¹³ 아들이 살 것 같으냐? 그는 살지 못한다.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,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.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.

³⁰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,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 회개하여라.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.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.

³¹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 버리고,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.

이스라엘 집안아,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? ³²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라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51(50), 12-13, 14-15, 18-19(◎ 12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하느님,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하느님,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,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,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. ◎
-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,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.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,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. ◎
-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,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.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. 부서지고 누우치는 마음을, 하느님,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11, 2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찬미받으소서.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.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9, 13-15

¹³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.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. ¹⁴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셨다. “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.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.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.” ¹⁵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성모 승천 대축일

8월 14일 전야 저녁 미사

〈8월 14일 저녁,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전후에 이 미사를 드린다.〉

제1독서 〈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.〉

▮ 역대기 상권의 말씀입니다. 15.3-4.15-16; 16.1-2

그 무렵 ³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,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. ⁴ 또한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모아들였다.

¹⁵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,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. ¹⁶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,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,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.

^{16.1}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. 그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.

²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,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32(131),6-7.9-10.13-14(◎ 8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일어나소서, 주님,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. 당신이 권능의 궤와 함께 드소서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보라,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,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. 우리는 그분 거처로 들어가, 그분 발판 앞에 엎드리세. ◎

○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. 당신 종 다윗을 보시어,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. ◎

○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,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. “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,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.” ◎

제2독서 〈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15.54-57

형제 여러분, ⁵⁴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,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 “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. ⁵⁵ 죽음아,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? 죽음아,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?” ⁵⁶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,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.

⁵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루카 11,28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.>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1,27-28

²⁷ 예수님께서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,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, “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.”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. ²⁸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. “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5일 주일 성모 승천 대축일

제1독서 <태양을 입고, 발밑에 달을 둔 여인>

□□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.

11, 19ㄱ; 12, 1-6ㄱ, 10ㄱ, 12

¹⁹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,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 궤가 나타났습니다. ^{12,1}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. 태양을 입고, 발밑에 달을 두고,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. ²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,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.

³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. 크고 붉은 용인데,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,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. 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.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,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.

⁵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 사내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.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,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. ⁶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.

¹⁰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“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,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45(44), 10, 11, 12, 16(◎ 10ㄴ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,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당신의 사랑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,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,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. ◎

○ 들어라, 딸아,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. 네 백성,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. ◎

○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.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, 그분 앞에 엎드려라. ◎

○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,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. ◎

제2독서 <말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,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15,20-27ㄱ

형제 여러분, ²⁰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. 죽은 이들의 말물이 되셨습니다. ²¹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,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. ²²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,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.

²³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. 말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,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. ²⁴ 그리고는 종말입니다.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,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.

²⁵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. ²⁶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. ²⁷ 사실 “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,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,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.>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,39-56

³⁹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,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. ⁴⁰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,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.

⁴¹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,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.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 큰 소리로 외쳤다.

“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,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 ⁴³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, 어찌 된 일입니까? ⁴⁴ 보십시오,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,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.

⁴⁵ 행복하십니까,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!”

⁴⁶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.

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, ⁴⁷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, ⁴⁸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.

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, ⁴⁹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, ⁵⁰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.

⁵¹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,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. ⁵²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,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, ⁵³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,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.

⁵⁴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,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, ⁵⁵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,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.”

⁵⁶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6일 연중 제20주간 월요일

제1독서 <에제키엘이 너희에게 예표가 되고, 그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.>

▣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24, 15-24

¹⁵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.

¹⁶ “사람의 아들이여, 나는 네 눈의 즐거움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너에게서 앗아 가겠다. 너는 슬퍼하지도, 울지도,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.

¹⁷ 조용히 탄식하며, 죽은 이를 두고 곡을 하지 마라. 머리에 쓰개를 쓰고, 발에 신을 신어라. 콧수염을 가리지 말고, 사람들이 가져온 빵도 먹지 마라.”

¹⁸ 이튿날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,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. 그다음 날 아침에 나는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. ¹⁹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말하였다. “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 주지 않겠습니까?”

²⁰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. “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내리셨습니다. ²¹ ‘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.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

나 이제, 너희의 자랑스러운 힘이고,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, 너희 영의 그리움인 나의 성전을 더럽히겠다. 너희가 두고 떠난 너희 아들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.

²² —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. — 콧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, 사람들이 가져온 빵을 먹지도 못할 것이다. ²³ 머리에 쓰는 끈을 그대로 쓰고, 발에는 신을 그대로 신은 채, 슬퍼하지도, 울지도 못할 것이다.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스러져 가면서, 서로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다.

²⁴ 예제키엘이 이렇게 너희에게 예표가 되고, 그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. 이 일이 일어나면,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신명 32,18-19.20.21(◎ 18ㄱ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.

〈이어지는 찬가는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바위를 저버리고,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. 주님은 보시고 분노하시어, 당신 아들딸들을 물리치셨다. ◎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“나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감추고, 그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리라. 그들은 타락한 세대, 불충한 자식들이다.” ◎
- “신도 아닌 것들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, 헛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.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,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.”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5,3

◎ 알렐루야.

○ 행복하여라,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, 너의 재산을 팔아라.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9,16-22

그때에 ¹⁶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, “스승님,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?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.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.”

18 그가 “어떤 것들입니까?” 하고 또 묻자, 예수님께서 이르셨다. “살인해서는 안 된다. 간음해서는 안 된다.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.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. 19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.’ 그리고 ‘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.’는 것이다.”

20 그 젊은이가 “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.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?” 하고 다시 묻자, 2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

“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,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.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.”

22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.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7일 연중 제20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,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.>

▣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28,1-10

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.

2 “사람의 아들이여, 티로의 군주에게 말하여라. ‘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‘나는 신이다. 나는 신의 자리에,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.’ 하고 말한다.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,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.

3 과연 너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, 어떤 비밀도 너에게는 심오하지 않다. 4 너는 지혜와 슬기로 재산을 모으고,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.

5 너는 그 큰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,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.

6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너는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.

7 그러므로 나 이제 이방인들을, 가장 잔혹한 민족들을 너에게 끌어들이리니, 그들이 칼을 빼들어, 네 지혜로 이룬 아름다운 것들을 치고, 너의 영화를

더럽히며, ⁸ 너를 구덩이로 내던지리라.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.

⁹ 너를 학살하는 자 앞에서도 네가 감히 '나는 신이다.' 할 수 있겠느냐? 너는 너를 살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사람일 뿐이지, 신이 아니다. ¹⁰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,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리라. 정녕 내가 말하였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'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신명 32,26과 27ㄱㄴ모.27ㄷㄹ과 28.30.35ㄷㄹ과 36ㄷㄹ(◎ 39ㄷ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.

〈이어지는 찬가는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나는 생각하였다. “그들을 산산조각 내고,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 버리리라.” 그러나 원수가 뿔낼까 보아, 적들이 착각할까 보아,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. ◎

○ 그들은 생각한다. “우리 손이 더 강하였다.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주님이 아니다.” 정녕 이 백성은 생각이 없고,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. ◎

○ 바위이신 분이 그들을 팔아 버리지 않으신다면, 주님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, 어찌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수 있으며, 두 사람이 만 명을 몰아낼 수 있으랴? ◎

○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, 재난이 삼시간에 닥친다. 주님은 당신 백성의 권리를 감싸 주시며, 당신 종들을 가없이 여기시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2코린 8,9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네.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졌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9,23-30

그때에 ²³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

말한다.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. ²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.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.”

²⁵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, “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?” 하고 말하였다. ²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. “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,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.”

²⁷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. “보시다시피,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.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?”

²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,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.

²⁹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, 아버지나 어머니,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,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.

³⁰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,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8일 연중 제20주간 수요일

제1독서 <나는 내 양 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 내어,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.>

□□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34,1-11

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.

² “사람의 아들아,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. 예언하여라.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. ‘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불행하여라,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!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?’

³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 먹고,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며, 살진 놈을 잡아먹으면서, 양 떼는 먹이지 않는다. ⁴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, 아픈 양을 고쳐 주지 않았으며, 부러진 양을 싸매 주지 않고,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,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.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.

⁵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. 흩어진 채,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

되었다.

⁶ 산마다, 높은 언덕마다 내 양 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. 내 양 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, 찾아보는 자도 없고, 찾아오는 자도 없다.

⁷ 그러므로 목자들아, 주님의 말을 들어라. ⁸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 나의 양 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, 나의 양 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, 나의 목자들은 내 양 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. 목자들은 내 양 떼를 먹이지 않고,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.

⁹ 그러니 목자들아, 주님의 말을 들어라. ¹⁰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. 그들에게 내 양 떼를 내놓으라 요구하고, 더 이상 내 양 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,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 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. 나는 내 양 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 내어,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.

¹¹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피 주겠다.’”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3(22),1-3 7.32-4.5.6(◎ 1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,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,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. ◎
-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.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,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.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,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. ◎
- 원수들 보는 앞에서,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,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,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. ◎
- 제 한평생 모든 날에,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,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. ◎

복음 환호송

히브 4,12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,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아니면,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?>

✦ 마태오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

20,1-16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

¹ “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. ²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,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.

³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,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. ⁴ 그래서 그들에게, ‘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. 적당한 값을 주겠소.’ 하고 말하자, ⁵ 그들이 갔다.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.

⁶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,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. 그래서 그들에게 ‘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서 있소?’ 하고 물으니, ⁷ 그들이 ‘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’ 하고 대답하였다. 그러자 그는 ‘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.’ 하고 말하였다.

⁸ 저녁때가 되자,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. ‘일꾼들을 불러,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.’

⁹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. ¹⁰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,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.

¹¹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, ¹² ‘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, 피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.’ 하고 말하였다.

¹³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. ‘친구여,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.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? ¹⁴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.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. ¹⁵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? 아니면,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?’

¹⁶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,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19일
연중 제20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,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.>

▣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

36, 23-28

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

²³ “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,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.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,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. 주 하느님의 말이다.

²⁴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,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. ²⁵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,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.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. ²⁶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,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.

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,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. ²⁷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,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.

²⁸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.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,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51(50), 12-13, 14-15, 18-19(◎ 에제 36, 25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.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하느님,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,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,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. ◎

○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,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.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,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. ◎

○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,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.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. 부서지고 누우치는 마음을, 하느님,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시편 95(94), 7ㄴ, 8ㄱ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.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.>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2, 1-14

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.

² “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. ³ 그는 종들을 보내어,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.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.

⁴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. ‘초대받은 이들에게, ‘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.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,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.’ 하고 말하여라.’

⁵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,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,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. ⁶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. ⁷ 임금은 진노하였다.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,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,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.

⁸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. ‘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,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. ⁹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,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.’ ¹⁰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,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.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.

¹¹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,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, ¹² ‘친구여,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?’ 하고 물으니,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.

¹³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. ‘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.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.’

¹⁴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, 선택된 이들은 적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0일 금요일
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

제1독서 <너희 마른 뼈들아, 주님의 말을 들어라. 이스라엘의 집안인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리라.>

▣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37,1-14

그 무덤¹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.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,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.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.²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.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,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.

³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. “사람의 아들이아,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?” 내가 “주 하느님, 당신께서 아십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⁴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.

“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. 이렇게 말하여라. ‘너희 마른 뼈들아, 주님의 말을 들어라.’⁵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.

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.⁶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, 너희를 살갓으로 씌운 다음,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.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.’”

⁷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.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,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, 뼈들이,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.⁸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,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, 그 위로 살갓이 덮였다.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.

⁹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. “숨에게 예언하여라. 사람의 아들이아, 예언하여라. 숨에게 말하여라. ‘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너 숨아, 사방에서 와,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,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.’”

¹⁰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,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.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,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.¹¹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. “사람의 아들이아,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. 그들은 ‘우리 뼈들은 마르고,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, 우리는 끝났다.’ 고 말한다.

¹² 그러므로 예언하여라. 그들에게 말하여라. ‘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. 그리고 내 백성이아,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

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.

¹³ 내 백성아,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,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,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. ¹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,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. 그제야 너희는,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. 주님의 말이다.’”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7(106), 2-3, 4-5, 6-7, 8-9(◎ 1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을 찬송하여라.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말하여라, 주님이 구원하신 이들,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들.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, 북녘과 남녘, 뭇 나라에서 모으신 이들은 말하여라. ◎
-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며,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였네. 굶주리고 목말라 목숨이 다하였네. ◎
-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, 역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네. 그들을 바른길로 견게 하시어,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네. ◎
- 주님께 감사하여라, 그 자애를,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.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,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. ◎

복음 환호송

시편 25(24), 4나, 5ㄱ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,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시고,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,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2, 34-40

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 사두카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, 바리새인들이 한데 모였다. ³⁵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. ³⁶ “스승님,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?”

³⁷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네 마음을 다하고, 네 목숨을 다하고,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.” ³⁸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. ³⁹ 둘째도 이와 같다. ‘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

한다.’는 것이다.

⁴⁰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.”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1일 토요일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

제1독서 <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.>

▣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43.1-7ㄷ

¹ 천사가 나를 대문으로,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데리고 나갔다. ² 그런데 보라,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.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,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.

³ 그 모습은 내가 본 환시, 곧 그분께서 이 도성을 파멸시키러 오실 때에 내가 본 환시와 같았고, 또 그 모습은 내가 크바르 강 가에서 본 환시와 같았다.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. ⁴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. ⁵ 그때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,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.

⁶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,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. ⁷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. “사람의 아들이여, 이곳은 내 어좌의 자리, 내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다.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곳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85(84), 9ㄱ-ㄷ과 10.11-12.13-14(◎ 10ㄴ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 영광 우리 땅에 머물리라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. 당신 백성,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,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.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,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. ◎

○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,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.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,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. ◎

○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,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. 정의가 그분 앞을
걸어가고,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.

◎ 주님 영광 우리 땅에 머물리라.

복음 환호송

마태 23,9ㄴ.10ㄴ

◎ 알렐루야.

○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,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
분뿐이시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.>

✠ 마태오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

23,1-12

¹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² “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. ³ 그러니 그들이
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.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
마라.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.

⁴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,
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.

⁵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. 그래서
성구갑을 넓게 만들고,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. ⁶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,
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, ⁷ 장터에서 인사받기를, 사람들에게
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.

⁸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. 너희의 스승님은 한
분뿐이시고, 너희는 모두 형제다. ⁹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
마라.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,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. ¹⁰ 그리고
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.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
분뿐이시다.

¹¹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
한다. ¹²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,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
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2일 연중 제21주일

제1독서 <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오리라.>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66, 18-21

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¹⁸ “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,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.

¹⁹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,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쫓, 활 잘 쏘는 루드, 투발과 야완 등 못 민족들에게 보내고,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,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.

²⁰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,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,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. 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

²¹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,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. 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7(116), 1.2(◎ 마르 16, 15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을 찬양하여라, 모든 민족들아. 주님을 찬미하여라, 모든 겨레들아. ◎

○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.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. ◎

제2독서 <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12, 5-7.11-13

형제 여러분, ⁵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. “내 아들이,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,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. ⁶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,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.”

⁷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. 하느님께서 여러분을

자녀로 대하십니다.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?

¹¹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.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.

¹²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, ¹³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.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6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십니다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,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.>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3,22-30

그때에 ²²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,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.

²³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“주님,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²⁴ “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,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.

²⁵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, 너희가 밖에 서서 ‘주님, 문을 열어 주십시오.’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, 그는 ‘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.’ 하고 대답할 것이다.

²⁶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. ‘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,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.’ ²⁷ 그러나 집주인은 ‘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.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,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!’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.

²⁸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,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.

²⁹ 그러나 동쪽과 서쪽,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,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.

³⁰ 보라, 지금은 풀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, 지금은 첫째지만 풀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3일 연중 제21주간 월요일

제1독서 <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,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시작입니다. 1,1-5.11-12

¹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. ²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.

³ 형제 여러분,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.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,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

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 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,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. ⁵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,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.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.

¹¹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,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. ¹²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,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,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6(95), 1-2, 7, 22-3, 4-5(◎ 3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들을 전하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주님께 노래하여라, 온 세상아.
주님께 노래하여라, 그 이름 찬미하여라. ◎
- 나날이 선포하여라, 주님의 구원을. 전하여라,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,
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. ◎
-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,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운
분이시네.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, 주님은 하늘을 지으셨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0, 27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. 나는 그들을
알고, 그들은 나를 따른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불행하여라,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!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3, 13-22

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¹³ “불행하여라,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! 너희가 사람들
앞에서 하늘 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. 그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
않을 뿐만 아니라,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.”⁽¹⁴⁾

¹⁵ 불행하여라,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! 너희가 개종자 한
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, 너희보다
갑절이나 못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.

¹⁶ 불행하여라,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! ‘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
아니지만, 성전의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.’고 너희는 말한다.¹⁷ 어리석고
눈먼 자들아! 무엇이 더 중요하냐? 금이냐,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
성전이나?

¹⁸ 너희는 또 ‘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, 제단 위에 놓인
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.’고 말한다.¹⁹ 눈먼 자들아! 무엇이 더
중요하냐? 예물이냐,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?

²⁰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, ²¹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, ²²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4일 화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

제1독서 <그 초석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.>

▣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.

21,9ㄴ-14

천사가 나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. ⁹ “이리 오너라. 어린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.”

¹⁰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,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. ¹¹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.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,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.

¹²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.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,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.

¹³ 동쪽에 성문이 셋, 북쪽에 성문이 셋, 남쪽에 성문이 셋,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. ¹⁴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,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5(144), 10-11, 12-13ㄴ, 17-18(◎ 12ㄴ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,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,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,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. ◎

-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,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.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,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.
- ◎ 주님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,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.
-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,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.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,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,49나

- ◎ 알렐루야.
- 스승님,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,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옵니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.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.>

✦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,45-51

그때에 ⁴⁵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. “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. 나자렛 출신으로,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.”

⁴⁶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, “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?” 하였다.

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“와서 보시오.” 하고 말하였다.

⁴⁷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. “보라,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.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.”

⁴⁸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“저를 어떻게 아십니까?” 하고 물으니, 예수님께서서 그에게, “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,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.” 하고 대답하셨다. ⁴⁹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.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.”

⁵⁰ 예수님께서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. “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?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.”

⁵¹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,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5일
연중 제21주간 수요일

제1독서 <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.>

□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. 3,6-10.16-18

⁶ 형제 여러분,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.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하십시오.

⁷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, ⁸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,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. ⁹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,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,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

¹⁰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,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.

¹⁶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.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.

¹⁷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.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.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.

¹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28(127),1-2.4-5(◎ 1ㄱ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!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,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! 너는 네 손으로 벌어들여라, 행복하여라, 너는 복을 받으리라. ◎

○ 보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.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.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1요한 2,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,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이다.>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3,27-32

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²⁷ “불행하여라,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!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,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.

²⁸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,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.

²⁹ 불행하여라,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!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, ³⁰ ‘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.’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.

³¹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.

³²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6일

연중 제21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.>

▮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시작입니다.

1,1-9

¹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²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. 곧,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,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

사는 곳이든,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. ³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.

⁴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,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⁵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. 어떠한 말에서나,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.

⁶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. ⁷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⁸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.

⁹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.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5(144),2-3.4-5.6-7(◎ 1나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,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.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,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. ◎
- 세대가 세대를 이어 당신 업적을 기리고, 당신 위업을 널리 전하리이다. 당신의 위엄 그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, 당신의 기적을 노래하리이다. ◎
- 경외로운 당신 업적 그 위력을 말하고, 당신의 크나큰 위업을 선포하리이다. 넘치는 당신 은혜를 기억하고 알리며,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24,42-44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.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준비하고 있어라.>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4,42-51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⁴² “깨어 있어라.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. ⁴³ 이것을 명심하여라.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, 깨어 있으면서,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. ⁴⁴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.

⁴⁵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,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? ⁴⁶ 행복하여라,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! ⁴⁷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.

⁴⁸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, 마음속으로 ‘주인이 늦어지는구나.’ 하고 생각하며, ⁴⁹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,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, ⁵⁰ 예상하지 못한 날,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, ⁵¹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.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7일 금요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

제1독서 <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.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지만,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

1,17-25

형제 여러분, ¹⁷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,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.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,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. ¹⁸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,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.

¹⁹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“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고,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 버리리라.”

²⁰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? 율법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?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?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? ²¹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,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,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.

²²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,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.

²³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.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,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. ²⁴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,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,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.

²⁵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,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33(32),1-2.4-5.10-11(◎ 5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. 울곤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.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,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. ◎
-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,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.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.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. ◎
- 주님은 민족들의 의지를 꺾으시고, 백성들의 계획을 흠으신다.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,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21,36

◎ 알렐루야.

○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신랑이 온다.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5,1-13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 ¹ “하늘

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.
²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, 다섯은 슬기로웠다. ³ 어리석은 처녀들은
등은 가지고 있었지만,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. ⁴ 그러나 슬기로운
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.
⁵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.
⁶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. ‘신랑이 온다. 신랑을 맞으러
나가라.’ ⁷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, ⁸ 어리석은
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‘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
다오.’ 하고 청하였다.
⁹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‘안 된다.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,
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.’ 하고 대답하였다.
¹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.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
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, 문은 닫혔다. ¹¹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
와서, ‘주인님, 주인님, 문을 열어 주십시오.’ 하고 청하였지만, ¹² 그는 ‘내가
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.’ 하고 대답하였다.
¹³ 그러니 깨어 있어라.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.”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8일 토요일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

제1독서 <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1, 26-31

²⁶ 형제 여러분,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. 속된
기준으로 보아,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,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,
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니다.

²⁷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
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
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

²⁸ 하느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,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
천대받는 것,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 ²⁹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
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.

³⁰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,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. ³¹ 그래서 성경에도 “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.”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33(32), 12-13, 18-19, 20-21 (◎ 12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행복하여라,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!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행복하여라,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,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!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, 모든 사람을 살피보신다. ◎

○ 보라,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,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.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,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. ◎

○ 주님은 우리 도움, 우리 방패,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.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,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3, 34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. 서로 사랑하여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,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5, 14-30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

¹⁴ “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. ¹⁵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,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,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,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.

¹⁶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. ¹⁷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. ¹⁸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.

¹⁹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.

²⁰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, ‘주인님,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, 보십시오,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.’ 하고 말하였다. ²¹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. ‘잘하였다, 착하고 성실한 종아!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,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.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.’

²²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, ‘주인님,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, 보십시오,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.’ 하고 말하였다. ²³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. ‘잘하였다, 착하고 성실한 종아!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,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.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.’

²⁴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. ‘주인님, 저는 주인님께서서 모진 분이시어서,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,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²⁵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,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. 보십시오,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.’

²⁶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. 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!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,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? ²⁷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.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.’

²⁸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,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. ²⁹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,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.

³⁰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.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.’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29일 연중 제22주일

제1독서 <너를 낮추어라.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.>

▮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3, 17-18, 20, 28-29

¹⁷ 애야,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.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. ¹⁸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.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. ²⁰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,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.

²⁸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,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. ²⁹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.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68(67), 4와 5ㄱ. 6-7ㄴ. 10-11(◎ 11ㄴ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하느님,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,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.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.

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. 그 이름 주님이시다. ◎

○ 고아들의 아버지, 과부들의 보호자,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.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,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. ◎

○ 하느님,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,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.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. 하느님,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,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. ◎

제2독서 <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,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12, 18-19, 22-24ㄱ

형제 여러분, ¹⁸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 볼 수 있고, 불이 타오르고 질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, ¹⁹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.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.

²²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,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,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²³ 하늘에 등록된 만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.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,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, ²⁴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합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11,29ㄴ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,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,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.>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4,1.7-14

¹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.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, ⁷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,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.

⁸ “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.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, ⁹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, ‘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.’ 할지도 모른다.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.

¹⁰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.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, ‘여보게,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.’ 할 것이다.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. ¹¹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,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.”

¹²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. “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,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.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. ¹³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, 장애인들, 다리저는 이들,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. ¹⁴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.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30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

제1독서 <우리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합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2.1-5

¹ 형제 여러분,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,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²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,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.

³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,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. ⁴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,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⁵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9(118), 97.98.99.100.101.102(◎ 97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,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- 제가 당신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! 온종일 그 가르침을 묵상하나이다. ◎
- 당신 계명은 영원히 저의 것. 그 계명 저를 원수보다 슬기롭게 하나이다. ◎
- 저는 당신 법을 묵상하기에, 어느 스승보다 지혜롭사옵니다. ◎
- 당신 규정을 지키기에, 어느 노인보다 현명하옵니다. ◎
- 당신 말씀을 따르려, 온갖 악한 길에서 발길을 돌렸나이다. ◎
-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기에, 당신 법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4,18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.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,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.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.>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4.16-30

그때에 ¹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,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.

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, ¹⁷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.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,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.

¹⁸ “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,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.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,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,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,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,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, ¹⁹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.”

²⁰ 예수님께서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,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.

²¹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“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.”

²²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,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. 그러면서 “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?” 하고 말하였다.

²³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너희는 틀림없이 ‘의사야, 네 병이나 고쳐라.’ 하는 속담을 들며, ‘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.’ 할 것이다.” ²⁴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.

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. ²⁵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,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. ²⁶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,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.

²⁷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.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,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.”

²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. ²⁹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,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.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,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.

³⁰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8월 31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2,10ㄴ-16

형제 여러분, ¹⁰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,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. ¹¹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,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? 마찬가지로,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.

¹²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,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. ¹³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,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,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.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.

¹⁴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,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. ¹⁵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,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.

¹⁶ “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,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?”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5(144),8-9.10-11.12-13ㄴ.13ㄷ-14(◎ 17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,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.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,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. ◎

- 주님,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,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.
- ◎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.
-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,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.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,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. ◎
-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,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.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,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7,16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 나타났네. 하느님이 당신 백성 찾아오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.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.>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4,31-37

그때에 ³¹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,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, ³²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.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.

³³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,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. ³⁴ “아! 나자렛 사람 예수님,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?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.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.”

³⁵ 예수님께서 그에게 “조용히 하여라.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.” 하고 꾸짖으시니,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치기는 하였지만,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.

³⁶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, “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? 저이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,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?” 하며 서로 말하였다.

³⁷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